中國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한종합연구소-

1. 사태이후의 中國의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새롭게 형성된 中國의 新指導部는 무력진압이란 강경책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란 노선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태의 진정이후 李鵬수상은 黨·政府기관의 책임자회의에서 인민의 사상교육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개혁, 개방정책은 지속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즉 당면한 시정방침의 중점사항으로 물가안정, 농업생산의 증대, 기본건설투자의 감축과 에너지 交通部門의 중점투자, 매스컴의 통제강화 이외에 개혁·개방정책의 견지와 경제건설노선을 지속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의 소요사태가 경제적 지방분권의 강화가 정치적 영역안으로 넘쳐 들어온 것으로 단정하는 신지도부의 생각 때문에 中國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외교역과 투자의 의사결정은 중앙집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개방의 폭이나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대시켜온 종전의 정책은 상당부분 후퇴하고 계획경제에 의한 정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 우리 경제에 있어서 中國의 의미

중국은 광대한 국토, 11억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2차대전 이후 共産化됨으로써 자유세계와는 「竹의 장막」으로 굳게 차단되었었으나, 1979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펴면서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美國등 선진국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때문에 소

위 「敵性國」으로 대해왔던 양국은 '88올림픽과 그 이전의 아시안게임등 민간, 체육교류에서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경제교류까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中國은 우리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카운터파트로 부상,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 잠재적인 주요 수출시장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代替시장으로 방대한 인구, 높은 경제성장 및 교역신장에 의해 향후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2) 原資材 공급처

石炭, 石油등 에너지자원과 原綿, 곡물, 비철금속등 원자재가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공급처로서의 기대가 크다.

(3) 생산코스트가 싼 생산기지

인건비의 상승, 개도국의 추격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봉착한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생산기지로 유용성이 높아졌다.

(4) 韓半島의 긴장완화 및 對共産圈 관계개선의 試金石

경제교류 증진을 통안 韓·中間의 관계개선은 남북대화에 긍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蘇聯및 동구권국가들과의 다각적 교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韓·中 경제교류의 현황

'88년부터 우리나라와 中國사이에 민간베이스로 체결된 주요 경제협정 또는 합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88년 4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 中國은 山東省, 遼寧省을 개방하고, 우리나라와 兩省은 상호 直交易과 합작투자의 여건을 조성.

–'88년 6월 우리의 민간통상대표단과 中國國際交易進出委員會 山東省分會간에 ①韓·中船舶직선로개설 ②은행간換去來개설 ③양국 민간인에 대한 비자발급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88년 9월 KOTRA와 中國 山東省 대표단은 韓·中間 최초의 공식민간협정을 체결.

–'88년 11월 中國 대외경제무역부의 고위관리는 韓·中 무역대표부 설치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은 분위기속에 韓·中經濟交流의 규모와 범위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1) 교역량

'79년부터 中國의 본격적인 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이 시작된 이후 교역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88년도의 교역량은 약 32억달러로 이중 수출은 18억달러, 수입은 14억달러로서 약 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1 참조). 한편 對中교역이 우리나라 총교역량중 차지하는 비중은 '88년 기준 약 2.8%이며 對共産圈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6%로 對共産圈교역의 대부분이 中國과 이루어지고 있다.

–'88년도 주요제품별 對中國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電氣·電子, 화학제품, 기계류, 화섬등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이, 수입은 섬유원료, 곡물, 石炭 및 石油, 철광석등 1次産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1〉 우리나라의 對中國교역량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추정)
교역규모	128.8	133.9	461.7	1,291.8	1,395.4	1,679.0	3,196.0	4,200
수출	48.0	51.3	299.2	682.8	714.9	813.0	1,809.0	2,400
수입	80.8	82.6	232.5	609.0	680.5	866.0	1,387.0	1,800
무역수지	△32.8	△31.3	△3.3	73.3	34.4	△53.0	422.0	600

〈資料〉 KOTRA

〈표-2〉 우리나라의 품목별 對中國교역 현황(1988)

(단위 : 백만달러, %)

	농수산물	광 산 물	화학제품	섬 유	철강·금속	전기·전자	기 계 류	잡 화 품	計
수 출	7.7	16.5	336.6	207.9	88.7	832.8	297.1	21.7	1,089
	(0.4)	(0.9)	(18.6)	(11.5)	(4.9)	(46.0)	(16.4)	(1.2)	(100.0)
수 입	385.6	221.9	76.3	468.5	198.3	1.4	2.8	31.9	1.387
	(27.8)	(16.0)	(5.5)	(33.8)	(14.3)	(0.1)	(0.2)	(2.3)	(100.0)

〈註〉 ( )안은 구성비

〈資料〉 KOTRA

(2) 對中國 투자규모

-對中國 합작투자는 중국의 경제특구 설정 및 외자도입 장려등 투자유인책에 힘입어 '86년부터 증가했는데 家電製品, 완구, 食品등의 생산업체들의 진출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봉제, 신발등의 노동집약적 중소업체들의 진출도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는 16개사로서 투자액은 3,729만달러이며(표-3 참조)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三星電子(C-TV), 大宇(호텔), 한국강관(강관), 仁川製鐵(합금철), 三星電管(CPT), 인성기연(무선통신기)등 10여개 업체들은 현지 진출을 위한 상담을 적극 진행중이다.

4. 中國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표-3〉 우리나라 業體의 對中國투자 현황

(단위 : 만달러)

업체명	생 산 제 품	생 산 지	투자액(지분율)	추 진 현 황
한스物産	봉제완구	광 동 성	32(-)	'86 4월 생산개시
한두水産	수 산 업	광 동 성	150(50%)	'87 1월 조업개시
朝鮮貿易	봉제완구	광 동 성	55(55%)	'88 4월 조업
大 宇	냉장고조립	북 건 성	607(48%)	'88 6월 조업
大宇電子	냉장고용 콤프레서	-	1,000(50%)	'88 8월 계약
斗山産業	食 堂	北 京	62(80%)	'88 6월 개업
럭키金星	완 구	北 京	48(50%)	'88 6월 계약
대영어업	수 산 업	광 동 성	350(90%)	'88 5월 계약, 12월 조업
不老人蔘	인삼제품	길 림 성	64.7(50%)	'88 6월 계약
서방산업	기 념 품	北 京	90(50%)	'88 7월 계약
일우수산	어로생산	해 남 성	150(100%)	'88 8월 계약
三益樂器	악 기	흑룡강성	500(55%)	'88 8월 계약
대 화	가 발	광 동 성	25(—)	'88 9월 계약
金星社	칼라 TV	주 해	255(51%)	'88 10월 계약
삼양식품	라면, 건조농수산물	산 동 성	300(50%)	'88 10월 계약
進 雄	텐 트	북 건 성	40(100%)	'89 2월 생산개시
計			3,728.7	

(1) 對中 경제교류

–中國의 개혁·개방정책기조가 전면 수정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對北方정책과 對中 경제교류에는 정책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중국의 정국불안과 경제침체를 예상할 수 있고 서방국가들의 對中 제재조치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입장도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中國사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輸出 : 對中수출은 당분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인데, 그 이유는 중국의 경기과열및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한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로 家電品등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던 우리업체의 수출이 감소하고, 동시에 개방속도의 감축과 안정화정책에 따른 성장둔화로 수출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대외신용도 저하에 따른 외화조달의 곤란과 외자부족으로 대금지불 불이행이란 리스크도 높아졌다.

• 수입 및 원자재 조달

–中國政情의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원자재의 국내공급최우선 조치에 따라 원자재의 수입이 곤란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원자재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주요 수입품중 石炭및 石油, 原綿, 곡물 및 사료, 광물등은 수입전환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지만 생사, 絹織物등은 輸入先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2) 주요산업별 영향

業 種	영 향	전망 및 대응
電氣·電子	對中國 수출 주력업종이지만 수출주문이 끊기고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도 부진. 금년초부터 지속된 수출둔화가 가속되고 있어 현지투자등을 보류하거나 백지화.	사태진정후에도 不要不急消費材의 수입억제로 수출목표를 전면수정해야 함. 수출차질분을 타 공산지역과 동남아, 제3세계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음.
石油化學 및 에너지자원	石油, 石炭등의 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자원개발 차원에서 신규자본의 유치에 오히려 적극적임 油化製品중 수출의 주종은 비료, 나일론수지, 합성세제, 폴리에스터수지 등 生必品이 많아 중국의 수입감소는 크지 않음.	에너지자원은 輸入先전환이 용이하여 큰 문제없음. 단지 油化製品은 對中國 수출품이 汎用製品으로서 수출선전환이 어려워 中國시장을 겨냥하여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선 업체들은 과잉 설비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임.
纖 維 (輕工業)	化纖, 合成織物등 對中國 수출품은 일시적으로 계약취소, L/C오픈의 지연등이 발생하였으나, 우려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던 스웨터, 니트衣類, 봉재완구, 면방, 신발등은 일시적으로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日本, 台湾등이 化纖분야에서 對中國수출품을 제3국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경쟁이 예상.	임금인상, 원화절상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제품차별화 정책에 의한 시장개척이 필요. 섬유 원료인 原綿이나 合織의 원료의 수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국내생산시설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단계
機 械	기계류 전체 교역량중 對中國무역량비중이 미미하여 큰 영향 없음. 국제시장에서도 경쟁제품이 없어 별영향은 없음.	소비재산업보다 자본재산업을 중점육성하게 될 것이므로 汎用工作機械 등은 中國産과 경쟁해야 할 듯.

(3) 石油·石炭 부문

(가) 對中國교역 현황

–中國은 풍부한 에너지자원국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이 교통이 불편한 西北部(요동성, 길림성)에 편중되어 있어 자원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中國은 가채가능한 에너지자원 및 그 기초설비의 부족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여기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과 자원개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특혜를 부여하여 왔다.

中國으로부터의 石油·石炭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1987	1988
석 유	13.0	38.0
석 탄	81.0	122.0
計	94.0	160.0

〈資料〉 KOTRA

中國의 石油·石炭 수출 현황

(단위 : 萬톤, 千배럴, 백만달러)

		1987	1988	1990(추정)
석 탄	수 량	1,300	1,700	7,000
	금 액	460	600	2,470
석 유	수 량	199,000	193,000	91,000
	금 액	3,582	3,474	1,638

〈資料〉 大韓石油協會 石油協會報, 1989. 5

(나) 영향

-위와 같은 中國경제의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 에너지투자개발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中國의 수출물량이 전세계 교역량의 1%에도 미달되는 石油 2억배럴, 石炭 17백만톤에 불과하므로 국제가격의 변동을 초래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8년 현재 韓·中間의 교역량은 160백만달러 정도로서 總 에너지자원 도입액 5,441백만달러의 3%에 그치고 있으므로 1989년 4월부터 (株)鮮京에서 향후 1년간 475만배럴(약 86백만달러)의 원유를 직도입한다는 것을 감안해도 현물시장이 안정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전면적인 거래중단에도 국내에 별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으로부터의 에너지자원 도입은 운반비와 보험료, 운반거리상 경제적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겨냥하여 신규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 당분간 관망상태를 보일 것이다.

(다) 전망 및 대응책

• 中國은 1980년 이후 유전개발에 총 36건(40억달러), 炭田개발에 12건(15억달러)의 대외합작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하여 왔으므로 현재 中國의 에너지 수급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사업의 권리는 확고히 보장될 것이며, 아울러 신규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해외자원개발을 이룰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中國지도층의 정책의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기업단위의 적극적 진출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일환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보다 경제성있는 자원제공처로서의 中國가치를 포기하는등 中國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치는 우는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 관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이 세계적으로는 4%, 韓國에서는 10%에 불과한 Venture의 성격이 짙은 프로젝트라는 사태를 상기해 볼 때, 그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사태가 진정되면서 새로 등장한 中國의 지도부는 애써 종전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서방국가들은 中國의 개혁·개방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中國은 국제신임도가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각국과의 교역량 및 외자도입이 감소하고, 對中비즈니스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中國경제는 후퇴할 위험을 갖게 되었다.

-한편 中國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인 면이 많다. 현단계에서는 실

질적인 손실은 없다 해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韓·中交易이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고, 對中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등 서방국가들이 취하는 각종 제재조치로 中國은 종전보다 우리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비즈니스차원에서 실익위주의 교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中國과의 협력·보완및 경합관계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교없는 對共産圈經濟交流에서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외교노력과 서방국가들의 눈총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가 동원되는 것을 전제해야 이 일은 가능할 것이다. 〈신한주보 85호〉

□OAPEC동향□

OAPEC의 石油輸出入收入 소폭 감소

아랍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OAPEC)의 1988년중 石油輸出收入이 602달러를 기록, 1987년의 632억달러보다 4.75%가 줄어든 것으로 OAPEC 연차보고서에 나타났다. 그러나 달러화가치 하락을 고려한 1985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볼 때 1988년도 석유수출수입은 1984년도 수입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8년중 OAPEC 11개 회원국의 산유량은 하루 1,384.3만배럴로 1987년의 1,286.9만배럴보다 17.6%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전체산유량의 22.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88년중 OAPEC의 石油 및 天然가스 확인매장량은 1987년보다 각각 17.3%, 13.9% 증가한 5,890.9억배럴과 24조 3,430억㎥로 밝혀져, 세계전체의 각각 59.5%와 21.5%를 점유하고 있다.

OAPEC 회원국별 산유량 추이

(단위 : 천b/d)

	1984	1985	1986	1987	1988
알제리	695	672	600	648	640
바레인	42	42	44	43	42
이집트	780	897	829	922	852
이라크	1,222	1,404	1,688	2,089	2,605
쿠웨이트	1,160	936	1,416	1,465	1,463
리비아	957	1,024	1,034	1,002	1,039
카타르	402	290	333	332	311
사우디아라비아	4,079	3,175	5,042	4,531	4,942
시리아	162	176	194	232	270
튀니지	114	108	107	104	101
UAE	1,142	1,309	1,370	1,501	1,578
計	10,755	10,033	12,657	12,869	13,843

〈資料〉: Middle East Petroleum And Economic Publications, MEES, June 19, 1989.